

# 어느 사장의 믿음

최 금 영

(동익컨설팅 대표컨설턴트)

얼마 전 지방도시에서 만났던 제조업체 사장왈 「우리회사는 4년전에 세계 최고라는 A사 컴퓨터를 사고, 서울의 대기업에서 전산과장 1명을 스카웃하여 전산화를 해 오고 있는데, 도대체 무얼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단 말이야.」 ‘그러시면 그 동안 전산개발 장기계획이나, 매년 전산개발 실적 및 계획보고도 안 받았습니까?’ 사장왈 「글쎄, 보고를 받았던것 같기도 하고, 나는 전산을 잘 모르니까 들어도 뭘 알아야지. 지금도 담당 상무가 알아서 잘 하겠지 믿고 있지 뭐.」 ‘그런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사장왈 「문제가 있는 것 같애, 작년에 납품처 협력업체 사장모임에 갔다가 담당 부장이 글쎄 우리회사 납품대금 청구에서 8천만원 누락되었다고 알려 주지 않겠어. 회사에 돌아와 불호령을 쳤으나 사무착오란 이유 외에는 뚜렷한 원인을 밝히지 못했어. 그 후론 전산처리에 대해 불안해서 말이야. 여러 공장간에 흩어

져 있는 것이야 제때 파악을 못하는 것 이외는 어디 날아가는 것은 아니지만 외부로 나가는일은 없어야 할텐데 말이야. 무슨 묘책이 없을까?」

그 이후 약간의 업무조사를 거친 다음 그 사장과 다시 만나서, ‘사장님 오케스트라에서 아무리 악기가 좋고 연주자의 노력이 있더라도 훌륭한 지휘자가 없다면 아름다운 선율을 연주할 수 없는 것과 같이, 귀사는 성능 좋은 컴퓨터를 사고 프로그램 개발자들의 노력은 있었으나, 현업의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고 최선의 해결방안을 도출할 수 있는 정보처리전문가의 역할이 없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귀사의 전산과장은 유통 분야의 전산업무 개발의 경험은 많으나 제조업의 생산관리시스템을 독자적으로 개발하기에는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지난 4년간 생산관리시스템의 핵심은 손 못 대고 인사, 판매, 자재관리 등 주변시스템 개발에 매달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장왈 「그러면 당장 어떻게 하면 좋은가?」 ‘정보기술을 기업경영에 잘 이용하려면 유능한 정보처리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실제 지방의 중소기업 전산 부서장들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받을 기회가 적고, 혼자서 책임져야 한다는 중압감과 일에 시달려 장기적 또는 거시적인 안목이 부족하기 쉽고 최근 개발되고 있는 정보공학이나 시스템공학의 기법이나 방법론에 약하기

때문에 이 분야의 전문가를 계약을 통해 이용하는 것이 문제 보완을 위해 좋습니다.’

우리는 위의 내용에서 세가지 문제를 엿볼 수 있다. 첫째 각 기업의 사장들이 자기회사 전산 부서장을 너무 믿고 있다. 둘째 대부분 중소기업의 전산 부서장들이 회사의 최고경영진이 이 분야에 비전문가이며 전적으로 위임하는 점을 이용해 정보처리전문가로 부터 도움 받는 것을 기피하고 있다. 셋째 시스템 공급업체에서도 전산 부서장을 감싸고 영업에만 신경 쓰지, 고객의 정보기술 이용의 근원적 문제는 소홀히 하고 있다.